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7호 [루계 제2528호]

주체 108
(2019)년 2월
9일
토요일
음력 1월 5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세계정치계의 거성》, 《뛰어난 외교의 거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르는

국제사회계의 매혹과 찬탄

비범한 정치실력과 대담단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불철을 공헌을 하고 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이 행성에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다.

새해의 첫아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를 하신 소식이 보도되자마자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인디아,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언론들이 일제히 그이의 영상사진문헌을 모시고 《역사상 처음으로 새롭고 파격적인 모습으로 진행된 신년사》 등의 표제에 그 내용을 대대적으로 전하였다.

언론들은 김정은위원장께서는 2013년부터 해마다 신년사를 발표하시었지만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양복차림으로 입장하시는 장면부터 공개하였다. 책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방에서 쓰파에 앉아서 신년사를 하시는 모습은 편안하면서도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도 매우 세련되고 부드러웠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김정은위원장의 신년사의 조신이 이제는 세계적인 강대국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음을 힘있게 과시하는 것이라고 평하였다.

역사적인 신년사에 대한 내외의 반향이 날로 커가는 속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단행하신 중국방문은 또다시 온 행성을 격

동으로 뒤흔들고 있다. 조종 두 나라사이의 친선단결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사변을 안아오신 위인의 대외활동소식은 광범한 언론들을 통해 지구상에 전해졌다.

언론들은 올해에 들어와 또다시 조종래왕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우 파격적인 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세인의 관심을 모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이번 중국방문은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 및 지역정세흐름에 새로운 기류를 형성한 의의있는 방문이었다고 강조하였다.

에리트신문 《알 바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새해의 첫 정치일정으로 진행하신 중국 방문을 놓고 그이의 외교활동의 특징이 분석되고 있다.

특징은 최고령도자의 외교활동이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라는 전략적목표를 이룩하기 위한데로 지향되고있으며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올해의 중국방문은 그이의 평화애호의지가 얼마나 굳건한가를 보여주는 세계앞에 보여준 방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방문은 최고령도자이시야말로 참으로 뛰어난 외교의 거장이심을 다시한번 실증해주었다.

한편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당 총비서, 기네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계, 사회계인사와 단체들은 련이어 축하담화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담화, 성명들은 김정은위원장의 이번 중국방문은 올해가 조종 외교관계설정 70돐이 되는 해인 것으로 하여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불과 9개월 남짓한 사이에 네번재로 이루어진 그이의 중국 방문은 세계외교사에 일찌기 잊어보지 못할것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조종친선의 불분성, 불분성을 다시한번 만방에 과시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파격의 연속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초에도 전세계를 《조선충격》, 《조선판》으로 들끓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진보적인류는 열화같은 축원의 인사와 경의를 드리고 있다.

위대한 정치가, 결출한 령도자의 높은 국제적권위는 그이께서 지난해에 단행하신 북남수뇌상봉들과 조미수뇌상봉, 중국방문들을 중국의 신화통신, 《환구시보》, 일본의 교도통신, 홍콩의 문자메시지, 인터넷통신 칼로가 《2018년 국제10대뉴스》, 《2018년 10대뉴스》로 선정된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전인류가 《김정은충격》, 《김정은열풍》으로 날과 달을 보낸 지난해의 북남 및 조미수뇌상봉을 벨라리아신문 《프루드》, 《2018년 주요사건들》로 정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미국 대통령과 약속하시는 영상사진문헌을 《2018년 10대주요사건들》에 모시었다.

싱가포르신문 《스트레이즈 타임스》는 본격적인 외교활동으로 세계정치계를 뒤흔들어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2019년에 주목되는 명인》으로 모시었다. 기존의 외교관례와 형식을 초월하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세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외교활동명령의 범위를 다각적으로 확대하시면서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위업을 주도해나가는 절세위인의 혁명활동소식은 언론계의 최고관심사로 되고 있다.

이런의 일사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제사회의 각광을 받으시는 조선의 최고령도자는 어떤분이신가. 오늘날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있는것이 바로 이 문제이다. 김정은각각께서는 많은 나라의 저명한 인사들과 평론가들로부터 《개성이 뚜렷한 정치가》,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 《강력하고 멋진 령도자》, 《2018년 세계정치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로 칭송받으신다.

그이의 외교활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단히 전격적이고 파격적이며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여러차례의 중국방문과 조미

수뇌상봉이라는 수뇌외교활동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시어 특대사변들을 연속 안아오신 김정은각각의 박력있는 외교활동방식은 세인을 경탄시키고 있다.

로씨야의 인터넷잡지 《렐취취》는 세계정치무대의 인기의 정치가로, 대단히 매력있는 국가지도자로 각국의 정계, 사회계인사와 광범한 언론들의 주되는 관심을 모으고계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인민은 끝없이 존경하며 따르고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서방언론들은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소식을 보도하면서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사변》, 《김정은위원장께서는 과거적이고 솔직한 발언과 대담하고 거침없는 행동, 립기유변과 유모아감각 등 예상을 뛰어넘는 외교술로 불과 하루동안에 수뇌회담을 세계적인 회담으로 성공시키시었다.》고 평하였다.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시는 명망높은 국가정치가》,

이것이 오늘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에 대한 만민의 정중이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실황중계로 비울수 있었던 그이는 너무도 멋진 지도자이시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정치계에 나선 첫 시기부터 국제사회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세계정치계의 거성》 이시다.

그이께서 혁신적인 안목을 지니시고 비상한 결단과 능란한 협상력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보장에 크게 기여하신데 대해 사람들은 경탄을 표시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주체사상연구 전권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이런 글을 올렸다.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소식에 접한 사람들이 70여년간이나 치열한 대결로 지속되어온 조미관계의 새 력사를 개척하신 김정은위원장께 매혹되어 격동된 심정들을 터치고 있다.

수많은 나라의 정계인사와 언론들이 김정은위원장을 《비상한 용단을 지니신분》, 《과감하고 결단력있는 지도자》, 《특출한 외교력을 과시하시는분》, 《자신감을 안고 국제정치정세를 주도해나가는 로숙한 정치가》, 《전략적으로 능숙하신 지도자》로 칭송하고 있다.

조선의 최고령도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제24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 개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제24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었다.

배구, 바드민턴, 태권도, 바줄당기기, 체육유희오락 등의 체육들이 김일성경기장, 평양체육관, 청춘거리 룡구경기관에서 진행되었다.

리 장소에서 4개 조로 나뉘어 승자전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개막식이 4일 청춘거리 룡구경기관에서 진행되었다.

300여가지의 제품 2월2일제품으로 등록

공화국의 여러 부분 공장, 기업소 등에서 제품생산공정들에 과학적인 품질관리체계를 세우고 질제고운동을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경련에국사이다공장, 평양곡산공장, 송도린종합식료공장, 개성고려인삼가공공장 등 여러 단위의 맛종고 영양가높은 식료품들이 질은 물론 상표도안과 포장도 훌륭한것으로 평가되었다.

니스, 홀발음원심볼트 등은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70(1981)년 2월 2일 전국품질감독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품질감독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며 품질감독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국가품질감독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해동안에 60개 단위에서 생산하고있는 300여가지의 제품들이 2월2일 제품으로 등록되었다.

김정숙평양직공장, 원산구두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평양화장품공장, 평양양말공장, 안주절연물공장, 안주뽕뜨공장 등에서 생산하는 데르론인견양복천, 남자겨울구두, 물크림, 세수비누, 너자양말, 페놀수지와

공화국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들을 2월2일제품으로 등록하고 있다.

평성김치공장 새로 건설

평성김치공장이 새로 일떠섰다. 평성의 봉화동지구에 건설된 공장에는 김치생산에 필요한 조건

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평성김치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조선민족의 전통음식이며 건강식

품인 김치를 생산하여 도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해파리양식기술 확립

수산성 수산연구원에서 인공배양에 의한 새기해파리생산기술을 확립하여 해파리를 공업적 방법으로 대량양식할수 있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유생단계와 새기해파리단계에 따르는 먹이처방을 과학적으로 작성해놓은것을 비롯하여 야의못과 바다서식장에 새기해파리를 옮겨 키우는 공장에서 제기되는 기술문제들을 해결하였다.

다 투자를 적게 들이면서도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대폭 늘여 준다.

연구집단은 엄지해파리로부터 인공적으로 알을 받아 깨우는 기술, 실내고밀도육육기술 등을 연구완성하였다.

새로운 해파리양식기술을 도입한 단위들에서는 이전보다

각종 생리활성물질이 조화롭게 들어있어 여러가지 약리작용을 하는 해파리리들은 공화국 인민들이 선호하는 음식의 하나로 되고 있다.

본사기자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광명성절경축 우간다준비위원회가 1월 21일 캄팔라에서 결성되었다.

조직하기로 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권위원회 위원장 마야발라 로렌스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77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위인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광명성절경축 파키스탄전권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월 22일 카라치에서 진행되었다. 파키스탄의 각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결성식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가 1월 21일 단마르크의 퀴베하른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로 단마르크의 공산당 지도부성원 헨닝 야콥센,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테스 크리스텐센, 단마르크주체사상연구소소 책임자 모렌 뎀이 선출되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각각는 김일성주석의 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비범한 사상리론가, 혁명의 정치원로, 창조와 건설의 영재, 인민의 령도자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그들은 또 한분의 결출한 령도자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각를 모시어 조선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전국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파키스탄로동자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에

스.알라프가 선출되었다. 전국준비위원회는 1월 23일부터 2월 16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토론회,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를 비롯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광명성절경축 오스트리아준비위원회가 1월 24일 빈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측진협회 위원장 에두아르드 크나프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숭배고도물들을 통하여 널리 소개한데다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광명성절경축 에티오피아준비

위원회가 1월 25일 아디스 아바

바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에티오피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권위원회 위원장인 에티오피아-조선친선 및 현대성위원회 위원장 니가투 다그나체우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1월 27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마자르, 리비아, 몽골, 나이지리아, 인디아, 이란, 체코, 에리트, 요르단, 스리랑카, 로씨야, 베네수엘라, 이슬란드, 스웨덴, 영국, 기르키즈스탄, 인도네시아, 벨라리아, 에스빠냐, 쿠웨이트 등 여러 나라들에서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들이 결성되었다.

본사기자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해외동포단체들과 일군들이 지지

남승우 총련중앙삼일위원회 부의장이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위한 자랑스러운 력사를 계속 써나가기 위한 전체 조선민족의 일치한 요구와 의지를 담은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에서 채택된 호소문을 지지하는 당파를 발표하였다.

이머 사상과 정견, 단체, 소속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재일동포들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함께시켜 나갈것이다.

총련은 북과 남, 해외의 련대연합을 강화하고 단행된 힘으로 북남선언들의 리행에 제동을 걸려는 그 어떤 도전과 방해도 반대배격하며 북남사이의 교류와 협력, 민족의 공동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 특색있게 이바지해나갈것이다.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에서 채택된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총련은 북과 남, 해외의 련대연합을 강화하고 단행된 힘으로 북남선언들의 리행에 제동을 걸려는 그 어떤 도전과 방해도 반대배격하며 북남사이의 교류와 협력, 민족의 공동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 특색있게 이바지해나갈것이다.

성명은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에서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갈것을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뜨겁게 호소하였다고 밝혔다.

총련은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하고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

성명은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지지하였다. 성명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이 있고 우리 재일동포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일 본땅에 끌려와 치욕스러운 망국노의 설움만을 당해온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민족제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통일조국을 일떠세우는것은 한시도 미루수 없는 최

대의 숙원이다. 우리는 반동일세력의 방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전체 조선민족의 꿈과 희망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데 앞장서나갈것이다.

정체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성원들은 호소문에 적극 호응하여 올해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와 번영, 통일의 리정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데 특색있게 기여해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에서 채택된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지지하여 재중동포단체들과 일군들이 당파들을 발표하였다.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김립시구협회는 담화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에 넘쳐있는 벅찬 시기에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받아안게 되었다고 밝혔다.

담화들은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위한 자랑스러운 력사를 계속 써나가기 위한 민족의 일치한 요구와 의지를 담은 호소문을 적극 지지찬동한다고 지적하였다.

재중동포들이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북남선언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것이라고 담화들은 강조하였다.

림명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목단강시구협회사단 지부장과 운영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련시지부 사무장도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는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담화들은 민족적화해와 평화의 영의 더 높은 평마루를 향한 거족적인군동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한 호소문을 끌어오르는 격정으로 접하고 전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북남사이의 군사적대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것은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려는것은 우리 겨레의 절박한 념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적극 지지찬동하고 받들어나가며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이바지하기 위해 합작해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굳게 결의한다고 담화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시 물 이 쓴 아 진 다.
—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

위대한 령장을 대를 이어 모신 민족의 긍지

위인적 행동에 매혹되어

자위적무장력인 인민군대의 70여년의 력사가 있어 공화국은 세인이 부러워하는 자위의 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다.

조선인민군이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강위력한 무장력으로 자랑떨쳐올수 있는것은 절세의 위인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돌이켜보면 나라가 해방된 후 정규무력을 하루빨리 건설하는것은 공화국을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한 절수요요구였다. 특히 나라의 절반 땅을 외세가 강점하고 우리 조국의 자유와 인민의 행복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절박한 조미의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국가발전의 진도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건군을 새 조국건설의 주요업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셨다.

해방은 되었으나 일제의 가혹한 식민통치로 국고마져 빈 당시의 형편에서 군중, 병중, 전문병을 다 갖춘 현대적인 정규무력을 건설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력한 총애에 의해서만 자주독립국가의 존엄도, 새 사회건설의 성과도 담보될수 있다는 철석같은 의지를 지니시고 정규무력건설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셨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혈과 로고속에 평양학원을 비롯한 수많은 군사정치간부양성기지가 조직되고 항공대, 수상보안대, 포병, 탱크병, 공병, 통신병을 비롯한 병중, 전문부대들이 꾸러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 조직된 군중, 병중부대들에서 우리 식의 군사규정과 교범, 부대지휘관리방법과 전법을 구

현하도록 하시는 한편 각종 무장장비와 군사물자를 비롯하여 정규군건설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완벽하게 갖추어나가도록 하시었다.

항일력명의 불길속을 헤쳐온 투사들을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 보안간부훈련소들에 파견하시어 그들이 군사정치간부들을 육성하며 각 군중, 병중의 모체부대를 꾸리는데서 주도적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몸소 강의를 하시면서 군사교육과 전투훈련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해방직후 찾으셔야 할 곳들이 많았지만 평천길을 먼저 걸으시며 우리 나라 병기공태의 새 력사를 펼치시고 무장장비 개선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령이나 다름없는 빈터우에서 현대적인 무기와 군사장비들을 원만히 갖춘 정규무력이 건설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이고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제 37(1948)년 2월 8일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조선인민군의 탄생은 온 세상에 선포하는 장엄한 열병식이 거행되게 되었다.

당시의 《로동신문》은 인민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오—우러러 보이는 곳에 김일성위원장!
...
누가 우리 조국의 강도를 침범할수 있느냐? 누가 우리 민족의 행복을 짓밟을수 있느냐? 우리에게 절세의 예극자 김일성장군이 계신다! ...
지금도 건군의 그날 총검을 비껴두고 입김을 날리며 보무당당히 나아가건 인민군대의 열병식이 생동한 화폭으로 안겨온다.
이 나라 아들딸들의 미더운 무장대오, 강철의 대오가 서리

발총장을 번쩍이며 보무당당히 행진한 그 길은 백두에서 시작된 성스러운 민족자주위업수행의 길이었다고 자주독립, 부강번영의 새로운 승리로 가는 길이었다.

이 력사의 길은 전승열병식 광장으로 이어졌다. 보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가벌처절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인민군대는 오늘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여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은 비범한 군사적재와 탁월한 령군술, 무비의 지략과 담력, 배짱을 지니신 천출명장이시다.

위대한 령장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인민군대의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빛내여가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인민군은 인민의 시각에, 임의의 작전공간에서 그 어떤 침략력도 단계에 제약할수 있는 최정에강군으로 더욱 장성강화되게 되었다.

인민군대의 최전방초소들과 포연선인 전투훈련장들에 견결한 반제국주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 필승의 타관을 지니시고 군력강화와 조국수호를 위하여 기용이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강대하고 통일번영할것이라고 하시었다.

강위력한 자위의 총대로 무적필승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

성스러운 그 이름 불려불수록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한 불세출의 천출명장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고 살아오는가를 가슴부듯이 절감하게 된다.

천세의 애국자이시며 천출명장이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2월 8일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백승의 전통과 더불어 세세전대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고구려벽화무덤, 개성일대의 력사문화유적들, 민요 《아리랑》과 김치담그기풍습 등과 같은 우수한 민족문화유산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다.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절세의 애국자를 모실 때 민족의 존엄과 우수성도 빛나게 된다. 그것은 공화국의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남녘의 동료들도 《북에는 분명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가 있고 고유의 멋과 향기가 있다.》, 《북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전통이 살아숨쉬는 곳이다.》, 《오늘 북에 민족의 열이 살아있는 문화유산들이 소중히 보존되어있는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라고 토로하였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이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천출명장이신 경에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더없는 행운이며 행복이다.

조선민족의 우수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더욱 빛내여가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이 땅에서 수한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가도록 하시기 위해 바쳐오신 그이의 로고와 심혈은 끝이 없다.

창건하고 백승의 한걸음 이끄신 인민군대는 오늘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여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건하고 백승의 한걸음 이끄신 인민군대는 오늘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여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은 비범한 군사적재와 탁월한 령군술, 무비의 지략과 담력, 배짱을 지니신 천출명장이시다.

위대한 령장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인민군대의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빛내여가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인민군은 인민의 시각에, 임의의 작전공간에서 그 어떤 침략력도 단계에 제약할수 있는 최정에강군으로 더욱 장성강화되게 되었다.

인민군대의 최전방초소들과 포연선인 전투훈련장들에 견결한 반제국주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 필승의 타관을 지니시고 군력강화와 조국수호를 위하여 기용이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강대하고 통일번영할것이라고 하시었다.

강위력한 자위의 총대로 무적필승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

성스러운 그 이름 불려불수록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한 불세출의 천출명장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고 살아오는가를 가슴부듯이 절감하게 된다.

천세의 애국자이시며 천출명장이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2월 8일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백승의 전통과 더불어 세세전대 길이 빛날것이다.

현충국

◎ 민족의 단합과 통일변영을 위한 길에서 ◎

민족공동의 변영을 위하여

주제 61(1972)년 5월과 11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측 대표들을 만나시었다.

그들에게 조국통일3대원칙에 대하여 교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이 합작을 실현하도록 할때 대하여서도 언급하시었다.

북과 남은 대결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합작하여야 한다고 하시 그이께서는 북과 남이 합작하면 그 과정에 민족의 힘이 더 커지고 조국통일의 기초가 튼튼히 닦아질것이라고 하시었다.

북과 남은 경제분야에서부터 합작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는 많은 인구가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 있다고, 북과 남이 합작하면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우리 나라를 부강

어느 해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을 만나시고 악보 《우리는 하나》를 내보이시며 노래가 잘되었다고 하시었다.

특히 가사가 아주 좋다고 하시며 그 노래가사에 있는 민족도하

한 나라로 만들수 있다고, 인민생활모래도 더 잘 풀수 있고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수 있게 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북과 남은 대결하고 경쟁할것이 아니라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머무름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합작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겨래의 열망과 환희를 담은 노래로

나이고 피졸도 하나이며 몽치면 하나이고 둘 합치면 더 큰 하나 라는 표현들은 철학적깊이가 있는 표현들이라고 하시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노래 《우리는 하나》를 합창으로 잘 형성하여 누구나 다 환희의 감정을 가

나이고 피졸도 하나이며 몽치면 하나이고 둘 합치면 더 큰 하나 라는 표현들은 철학적깊이가 있는 표현들이라고 하시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노래 《우리는 하나》를 합창으로 잘 형성하여 누구나 다 환희의 감정을 가

본사기자

민족의 력사와 문화전통을 귀중히 여기신다

은 나라 사람들이 설명절을 즐겁게 보내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전통적인 민요선물이 울려 퍼지고 백발의 노인들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풍만한 민족정서와 량민속에 다채로운 민족놀이로 흥겹게 보낸 명절은 깊은 여운을 주었다.

어느 민족에게나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고유한 민족문화와 전통이 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한강도에서 살아오면서 창조한 우수한 민족성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민족성도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하면 빛을 잃고만다는것이 력사가 새겨주는 철리이다.

민족의 향취가 면면히 이어지는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를 지니시고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빛내이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우리 민족이 창조한 우수한 모든것을 찬란히 개화발전시켜 조선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쳐도록 하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었다.

《조선민족애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적극 살

려나갈데 대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비롯하여 위대한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는 많은 인구가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 있다고, 북과 남이 합작하면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우리 나라를 부강

어느 해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을 만나시고 악보 《우리는 하나》를 내보이시며 노래가 잘되었다고 하시었다.

특히 가사가 아주 좋다고 하시며 그 노래가사에 있는 민족도하

나이고 피졸도 하나이며 몽치면 하나이고 둘 합치면 더 큰 하나 라는 표현들은 철학적깊이가 있는 표현들이라고 하시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노래 《우리는 하나》를 합창으로 잘 형성하여 누구나 다 환희의 감정을 가

민이라고 교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런 노래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리우게 된다고 하시었다.

민요 《아리랑》을 조선민족과 맺수 없는 노래로 여기신 그이께서는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첫시작에 이 노래를 넣도록 하시었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제목도 《아리랑》으로 하여 창조하도록 세심히 가르쳐 주시었다.

한가락의 민족춤을 보시고도 상모발이 짝이치고있는대 대하여 일깨워주시고 또 인제인가는 백의민족의 유래에 대한 자료도 내리보내주시며 일군들을 민족성고수에 이 끌어주시는 장군님이시었다.

머나먼 현지도의 길을 마치시고 평양에 돌아오시는 길로써 룡경기결과를 알아보시며 민족서름경기를 전통화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는 이야기, 민족의 고유한 인사와 구미에 맞는 시원한 조선김치, 구수한 토장국을 적극 장려하도록 하시 이야기와 어복쟁반국수에 못지 않는 고기쟁반 국수와 같은 새로운 음식도 만들어 민족의 음식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시고 옷차림에서도 민족성을 장려하도록 일일이 보살펴주시는 이야기들 비롯하여 우수한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가도록 하시기 위해 바쳐오신 그이의 로고와 심혈은 끝이 없다.

본사기자 김철진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사상과 정경이 다른 사람들도 누구든지 우리 수령님을 한번 만나보이면 그 고결한 인품에 매혹되어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존경하였다 하시었다.

세계정치의 원로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애의 전기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시였으며 외국의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을 비롯한 수많은 외국수반들을 만나시었다.

한없이 고결한 인품과 넓은 포용력, 숭고한 의리와 인정미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은 자주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너그럽히 대해주시는 성인이시였으며 한번 인연을 맺은 동지들과 벗들과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신 위대한 인간, 도덕의리의 화신이었다.

그이의 한없이 위대한 품에 안겨 전우로, 친군한 벗으로, 친구로 삶을 빛내인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뵈은 외국의 국가수반들이나 정치가, 저명한 인사들은 그 누구와 한itting이 그의 탁월한 사상과 높으신 식견, 위인적품모에 다함없는 존경과 신심을 금치 못해하군 하였다.

주제81(1992)년 4월 중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부주필 조세프 사이너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워싱턴 타임스》 기자단을 만나시었다.

그때 기자단 단장이 그이께 취미가 무엇인지 말씀해달라고 청을 드렸다.

세계적으로 그처럼 명망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취미가 무엇이겠는가 하는것이 그들의 특별한 관심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기심에 잠

겨있는 그들에게 자신에게는 내놓고 말할만 한 취미가 따로 없다고 하시었다.

그때도 그 어떤 취미가 있을수 있지 않겠는가고 다시 묻는 그들을 미소속 바라보시며 수령님께서는 굳이 취미라고 한다면 뭐가지로 말할수 있는데 책보기를 좋아하고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지내는것이 자신의 취미라고 하시었다.

기자단성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지금까지 사냥이나 낚시질, 수영이나 유희가 자기의 취미라고 하는 국가수반들과 제노라 하는 정객들은 많이 보아왔지만 책읽기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것을 취미로 여기시는 수령은 알지 못했기때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그들은 너무나 소박한 취미이지만 담겨진 뜻은 우주와도 같다고 하면서 주석각하의 취미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수 없는 명실공히 세계적위인의 취미라고 자기들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그이의 위인적품모에 매혹된 사람들중에는 미국의 39대대통령을 지낸바 있는 지미 카터도 있었다.

주제 83(1994)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화국을 방문한 전 미국대통령 카터와 함께 유람선을 타고 서해갑문으로 향하시었다.

그날 배에서 오찬이 진행될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구미에 맞는 음식들을 특별히 골라 차렸으니 어서 많이 들라고 하시었다. 카터는 식탁에 오른 로리를 주의깊게 여겨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카터에게 당신이 콩알레르기에 걸리라는것을 알고 그에 맞게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시었다.

어떻게 자기의 개인 《비밀》까지 알고계시는가고 묻는 그에게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미소를 지은 신체 자신께서는 세상에 모르는것이 없다고 하시었다.

그러자 그는 자기도 주석각하의 《비밀》을 하나 알고있다고 하면서

주석각하께서 일부 사람들이 주저하였지만 칠색송어를 번식시키기 위하여 알을 많이 깨워 강에 놓아주도록 하시였기때문에 지금은 조선에 칠색송어가 많이 퍼지게 되었고 그것을 인민들이 먹을수 있게 되었다는것을 알고있다고 말씀하셨다.

어느덧 배가 남포항을 가까이 하고있었는데 카터는 멀리 바라보이는 두개의 크지 않은 사이로를 가리키며 주석각하께서 세상에 모르는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 사이로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이로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가 충분히 이해할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었다.

그이의 설명을 듣고 난 카터는 세게에는 국가수반들이 많지만 자기만의 사이로에 무엇이 들어있는것까지 알고있는 국가수반은 없을것이라고 하면서 정말 주석각하는 세상에 모르는것이 없다고 갈탄하였다.

하기에 그는 수령님께 완전히 매혹되어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괴력했다.

《김일성주석은 미국의 건국과 운명을 대표했던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3대대통령들을 다 합친것보다 더 위대한분 이시다.》

비단 그들만이 아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은 일본의 고위장관이었던 가네마루는 김일성주석각하를 위하여 생을 바치는것은 자기의 마지막사명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 사명을 다하였고 도이힐란드의 녀류작가 루이저 린지는 그이를 위해 한 줄, 한글자라도 더 쓰자고 숨지는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하면서 영생을 그이의 위인상을 저술하는데 바치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칭송과 좋은 목소리는 세기와 세기를 이어 오늘도 울리고있다.

그것은 탁월한 령도력과 비범한 예지, 민사에 도통한 식박한 지식과 비상한 정신력, 풍만한 정서와 넓은 포용력, 한없는 인간애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칭송의 메아리이다.

본사기자 고성호

◎ 다함없는 애국의 마음을 담아 ◎

1894년 국제 박람회 기념주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리히텐슈타인공국 왕자 리히텐슈타인 프린츠 운트 알프레드가 주제 104(2015)년 10월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올린 선물이다.

그는 경에하는 원수님께 어떤 선물을 올리겠는가고 고시한 끝에 리히텐슈타인왕실에서 가보로 보관하고있던 100여년전에 만들어진 기념주화와 은화를 선물로 올리기로 하였다.

기념주화의 앞면에는 오스트리아—마자르왕제였던 호란프 요제프 1세의 초상이 부각되어 있으며 레두리에는 《오스트리아 황제 마자르 왕 호란프 요제프 1세》라는 글이 도이힐란드어로 새겨져있다.

뒤면에는 《1894년 4월 20일에 농업, 군사물자, 구조체계, 수송체계 등의 주제하에 열린 국제박람회를 기념하여, 원원형권물》이라는 글이, 레두리에는 《농업지식 보급협회》라는 글이 도이힐란드어로 새겨져있다.

두개의 은화는 1900년과 1908년에 제작된것이며 호란프 요제프 1세의 초상이 형성되어있다.

왕자는 기념주화에 새겨진 자급자족, 민족자결권, 주권과 국제평화질서를 위한 투쟁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력사에서 중요한 문제로 되여왔고 그를 지키기 위한 도전적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나라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이 선물에는 경에하는 김정은령도자께서 자주, 자립, 자위의 정치를 변함없이 이어가시길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반영하였다고 하였다.

동으로 만든 기념주화의 직경은 5.7cm이며 은화의 직경은 각각 3.6cm이다.

본사기자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쳐가시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인민이 자리잡고 있다.

그이께서는 조국을 떠나 외국방문의 길에 개설 때에도 두고은 조국산천과 인민을 생각하시고 못 견디게 그리워하시었다.

새해정초에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을 하시는 날날에도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쓰는 따뜻한 마음을 불태우시었다.

그이께서 베이징동인당주식유한공사 제약분공장을 참관하신 하나의 사실에서도 그것을 잘 엿볼수 있다.

2004년말에 건립된 이 공장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고 이름있는 중국전통약물생산기업인 베이징 동인당주식유한공사의 제약분공장이므로 자기가 전통약물들을

생산하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제약공정들을 참관하시며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보시었다. 그리고 이 제약분공장이 앞으로 기업경영에서 더 큰 성공이 있기를 축원하시었다.

기 위하여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중진시키고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초에도 평양제약공장을 찾으시어 더 높은 현대화목표를 제시하시였었다. 평양제약공장의 개건현대화는 단순히 의약품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과 TV화면으로 그 뜻깊은 화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절로 갈마든것은 인민들의 건강중진을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었다.

그이께서 인민들의 건강중진을 위해 옥류아동병원과 류경안과종합병원, 류경치과병원을 비롯한 현대적인 병원들과 보건선상공장, 치과위생용품공장을 비롯한 보건시설들을 새로 일떠세워주시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민들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초에도 평양제약공장을 찾으시어 더 높은 현대화목표를 제시하시였었다. 평양제약공장의 개건현대화는 단순히 의약품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제가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중진시키고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초에도 평양제약공장을 찾으시어 더 높은 현대화목표를 제시하시였었다. 평양제약공장의 개건현대화는 단순히 의약품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연제나 인민들을 생각하고 인민들의 복리중진을 위해 마음쓰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외국방문의 날날에도 제약분공장을 오랜 시간 돌아보신것이라

본사기자 리경월

언제나 인민들생각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는데 대하여 천명하시었다.

그러면 들을수록, 새기면 새길수록 통일을 일일천주로 바라는 겨레의 숙원을 하루 빨리 풀어주시려는 절세위인의 열화같은 민족애가 뿜어 넘치고 있다.

돌아보면 일제를 쳐 물리친 삼천리강토에 해방만 세리까지 가서 지기도 전에 외세는 반만년 오랜 세월 상부상조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분열이라는 가슴아픈 상처를 안겨 주었다. 이때부터 70여 년 동안 북과 남은 한피줄을

잇고 한강토에서 살면서도 마음대로 오가지 못했고 반목과 불신은 오히려 깊어만 갔다.

하지만 우리 겨레는 어느 하루도 통일된 강토에서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평화변영과 통일의 길로 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숙원은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분렬과 대결의 력사를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고 막을 수 없는 력사의 흐름으로 되고 있다. 조국통일은 누구도 외면하여서는 안 될 민족사적 책무이며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북남관계는 마땅히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지나해 북과 남은 서로 뜻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불신과 대결의 최극단에 놓여 있던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개로 확고히 돌려세우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공화국의 대법한 결단과 적극적이며 성의있는 조치들에 의해 북과 남은 서로 굳게 손잡고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위한 사업에서 공인을 올려주는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공화국은 새해정초에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 온 겨레에게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 나가는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민들은 전폭적인 지지성원을 보내면서 《2018년 남북관계의 극적

인 변화들에 이어 2019년은 남북관계발전과 조국통일 실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가 될 것이다.》, 《민족자주, 민족대단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변영,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하면서 통일열기를 분출시키고 있다.

이처럼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공화국뿐만 아니라 남조선에서도, 조선민족이 사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서나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겨레 누구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의 활로를 열어가는 길에서 이룩한 성과들이 계속 이어져 자주통일의 새 아침이 하루빨리 밝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

북과 남은 지금 존재하는 사상과 체도를 서로 인정하고 융합하는 기초에서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전민족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혜와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곧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과정이며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관점과 립장에서 풀어나갈 때 겨레의 숙원은 실현될 수 있다.

심장에 조선민족의 피가 끓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조국통일을 앞당겨주기 위한 통일론의 마당에 적극 뛰어들어야 하며 민족성원 모두가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리 어 금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있는 지금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가는 것은 온 겨레의 확고한 의지로,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되고 있다. 이 력사적 흐름에 맞게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그 어떤 장애와 난관에도 굴함없이 민족화해와 평화변영의 리정표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의 강령이다.

판문점선언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민족화해의 새 력사,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온 세

상에 선포한 력사적인 선언이며 9월평양공동선언은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의 더욱 가속화하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변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기 위한 중요한 실천적 과제들이다.

이처럼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대토를 열어가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고 있

는 것으로 하여 우리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다. 북남선언들은 리행과정을 통해서도 그 정당성과 생활력도 뚜렷이 입증되었다. 돌이켜보면 지나해에 북과 남

못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을 내디디었다.

지난 한해 동안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극적한 변화들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

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는 것, 바로 여기에 민족적 화해와 평화변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가는 길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 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가로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감으로써 올해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남조선 시민사회단체들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연대모임 개최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월 30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남북공동선언리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연대모임 추진위원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가슴벅찬 미래를 단합된 힘으로 함께 열어 나갈 것임을 호소하였다. 단체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되었다. 모임에서는 지금이 다시는 적대와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모든 민족성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지난

해 북남수뇌분들의 합의를 조선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리행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북남간 협력을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함께 마련하고 합의하기 위한 전사회적토론을 시작할 것 등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리행해나가는 과정

을 통하여 적지 않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북과 남의 체육인들은 국제경기무대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단합된 힘을 내외에 펼치게 되었고 민족적 화해와 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켰다. 또한 북과 남은 여러가지 장애와 난관을

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도 두렵지 않으며 북남관계개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능히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 주었다.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민족의 화해단합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겨레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는 외세의 책동은 의연히 계속되고 있다. 외부세력의 간섭과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 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가로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감으로써 올해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통일교실

화해와 협력의 상징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하신 이후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재개에 대한 겨레의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제안은 발표되자마자 남녘의 각계층속에서 커다란 지지 환영을 받았다. 이들은 《김정은위원장의 신년사는 우리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져다 주었다.》, 《개성공단은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한다.》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북의 조건없고 대가없는 재개의를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재개를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어정쩡한 목소리들도 울려나오고 있다.

새해에 공화국이 내놓은 개성공업지구재개제안을 보더라도 뜨거운 민족애, 동포애의 산물이고 오늘날의 평화변영시대를 더욱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가는 애국애족의 의지가 낳은 획기적인 제안이다.

개성공업지구 어떻게 되어 탄생하였고 또 순간의 멈춤도 없이 10여년 동안이나 민족공동번영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왔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온 겨레가 목격하고 체험한 사실이다.

북과 남의 지혜와 힘이 합쳐져 이루어지고 활발히 운영되어온 개성공업지구에서

는 단순히 인기를 끄는 제품만 생산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되었다. 그보다도 더 큰 수확은 화해와 단합의 마음이 더욱 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북과 남의 각계층 사람들은 사상과 체도를 초월하여 우리 힘을 합치면 더 큰 것을 이루어내고 개성을 능히 알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가슴부터 감명하였다.

북남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였던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더욱 완화된 것, 전쟁위협이 아니라 평화의 기운이 중대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겨레가 입은 혜택은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큰 것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한 전문가도 《북이 공업지구건설을 위해 많은 무력을 후방으로 옮겼으며 협력적이며 공업지구 군사적으로 완충지대를 하는 평화의 상징이자 보루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남조선의 일각에서는 개성공업지구 그 누구에 대한 《퍼주기》인 듯이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개성공업지구 운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려온 것은 다름 아닌 남조선의 기업가들과 인민들이다.

2004년 12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업지구는 2016년 2월 폐쇄되기 전까지 124개의 남조선기업들이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벌였다. 여기서 2015년까지 남조선의 입주기업들은 모두 32억 303만 US\$에 달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막대한 리득을 보았다. 또한 입주기업들과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남조선에 5,900여개나 생겨났으며 20만개의 일자리도 생겨났다. 《개성공업지구에서 북에

주는 임금에 1이라면 기업들이 얻은 경제적효과는 10이다.》, 《남조선백화점들에서 판매되는 명품상품들은 거의 모두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리득을 많이 보지만 당국의 전면중단조치로 그동안 번졌던 활력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남조선잡지에 실린 글을 통해서도 개성공업지구 운영으로 누가 훨씬 더 많은 리득을 보았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숭고한 민족애, 통일 의지의 산물이며 오랜 기간 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안아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민족이 통일으로 나아가는 데서 협력의 상징으로 되었던 소중한 개성공업지구 운영이 하루아침에 중단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의 이전 보수 《정권》들의 동족대결정책 때문이다.

지나해에 북과 남은 세차레의 북남수뇌상봉과 선언들을 통해 불신과 대결의 과거를 끝장내고 관계개선과 평화변영의 미래로 손잡고 나아갈데 대하여 확고하였다. 화해와 단합, 협력과 평화가 대체의 흐름이 된 오늘날 민족의 의사에 어긋나게 중단된 개성공업지구를 재개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금강산관광과 함께 개성공업지구는 북남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며 그 재개에 대한 태도는 북남선언리행의 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온 겨레는 개성공업지구의 재개로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더 큰 성과와 기적이 이루어기를 바라고 있다.

신 기 복

북남탁구단일팀의 여자인공을 만나

—4.25 체육단 여자탁구선수 공훈체육인 차효심과의 대담—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관심과 열망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속에서 얼마전 우리는 4.25체육단의 여자탁구선수 공훈체육인 차효심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지난 해 남조선의 대전에 진출된 2018년 국제탁구련맹 세계대회에서 코레아공개탁구경기대회에 단일팀으로 출전하여 혼성복식경기에서 우승을 쟁취한 선수이다.

기자: 지난해에 북과 남은 여러 종목의 국제경기들에 단일팀을 무어 출전하여 민족의 슬기와 힘을 세계에 떨치는 자랑스러운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북과 남의 탁구단일팀으로 국제경기에 참가했던 소감을 듣고 싶다.

차효심: 사실 처음으로 남녘땅을 밟은 나에게 차창밖의 풍경들은 몹시 낯이 설었다. 그러나 남녘동포들이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를 반

겨 맞아주는 것을 보면서 혈육의 뜨거운 정을 느꼈다. 남조선탁구협회에서 마련한 연회를 참가하였을 때 장우진선수가 찾아와 《많은 부탁드립니다.》하고 인사를 했다. 그때 나는 그와 함께 경기에 참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자: 함께 경기에 참가하였던 남녘의 장우진선수에 대해 말해달라.

차효심: 그는 남조선에서 전도가 기대되는 선수로 알려져 있다. 나보다 한살 아래인 그는 나를 누나라고 불렀다. 그와 복식조를 무어 진행한 첫 경기상대 다음경기엔 진출하게 되었다. 우리는 함께 훈련을 많이 해보지 못하고 경기참가 전에 30분정도 훈련하고 경기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에서도 우리는 서로 마음을 합쳐 경기할 수 있었다. 우진선수가 상대팀의 남조선

수의 기술에 대하여 알려주고 나는 상대팀 여자선수에게 대하여 말해주면서 매 경기를 치르었다. 준준결승경기에서 중국홍콩팀을 누르고 준결승경기에서 중국대륙팀을 이겼을 때 우리는 결승경기에서 꼭 우승함으로써 민족의 슬기와 힘을 떨치겠다는 각오를 가졌다.

기자: 결승경기에서 어떻게 우승의 영예를 지니셨는지 구체적으로 들려주었으면 한다.

차효심: 결승경기에서 우리는 온 겨레의 관심과 기대, 응원열기에 우승으로 화답하고 싶었다. 그래서인지 나 자신이 우진선수보다 결승경기 전과정에 말을 많이 하였다고 생각된다. 우진선수가 경기진술적 측면에서 나에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였다면 나는 경기심리 조절을 위한 측면에서 그에 나의 의사를 전하였다. 서로의 기술과 힘을 합쳐 민족의 영예를 꼭 떨치려

는 하나의 지향이 우리사이를 더욱 가깝게 했다. 북남의 온 겨레가 우리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탁구공 한알한 알을 책임적으로 넘기었고 결국 우승의 단상에 오를 수 있었다.

기자: 경기과정에 남녘동포들의 응원열기도 대단했다고 알고 있는데...

차효심: 그렇다. 남녘의 관중들은 우리가 진행하는 경기마다 열띤 응원으로 상대팀에는 위압감을, 우리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안겨 주었다. 모든 경기가 다 그러했지만 특히 결승경기를 할 때는 4,000여석의 관람석이 관중으로 꽉 차고도 자리가 모자라 북도와 출입구에 서서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우리도 헤아릴 수 없었다. 우리가 득점할 때마다 관중들은 폭풍같은 박수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강하다.》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응원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경기마감후 전에서는 온 관중이 우리의 승리를 고무하는 노래를 합창하였다. 남조선의

인터네트와 언론들은 이날의 경기를 두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작은 통일)을 이뤄낸 순간이었다.》, 《하나된 남북은 정말 강했다.》, 《탁구단일팀 (찰떡남매)의 우승》이라고 대서특필하였다.

나와 장우진선수는 우리들의 경기성과를 위해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내준 남녘의 동포관중들에게 머 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온 겨레의 기대와 관심, 동포형제들의 뜨거운 응원에 떠받들려 우리는 기어 이 우승의 영예를 쟁취할 수 있었다.

참으로 남조선의 대전에서 진행된 국제공개탁구대회에서 우승을 쟁취한 것은 북과 남이 체육분야에서 힘을 합쳐 이룩한 공동의 승리와 민족의 큰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탁구단일팀으로 경기에 참가하는 과정에 북남이 힘을 합치면 정말 강해지고 못해낼 일이 없겠다는 자신감이 더욱 생겼다.

기자: 남녘의 장우진 선수에게 새해에 하고 싶은 말은?

차효심: 이제 머지않아 마자르에서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열리게 된다. 나는 우진선수가 앞서 말고 건강하여 경기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라며 국제탁구무대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기자: 오늘 좋은 말을 들려주어 감사하다. 앞으로 국제경기무대에 더 많이 출전의 승리를 고무하는 노래를 합창하였다. 남조선의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으로 출전하여 우수한 차효심, 장우진선수들

박근혜의 망령이 배회하고 있다

박근혜의 망령이 지옥의 무경을 열고 나왔다.

격노한 초분바다의 기세에 질질하여 자라목처럼 움츠리고있던 시정배 황교안이 권력의 감투를 써보겠다고 남조선 정치권에 뛰어든것이다.

얼마전 《자유한국당》에 계마라든 어은 이자는 그대로부터 불과 10여일이 지난 1월 29일에는 《당대표출마》선언이라는 팽파리를 울리며 마침내 마각을 드러냈다.

상통은 기생오래비처럼 해말썹해도 박근혜의 진배가 더더더더 뭉은 그 옛적은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어찌 작기 돌아치며 《지지》를 구걸질하는 소리는 듣기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

이자는 천하악녀 박근혜역도의 그 무슨 《공》에 대해 지껄여대며 《수갑중에 있기때문에 걱정한다.》고 윗상을 짓는가 하면 경상북도지방에 출사하는 《이곳은 박정희 전대통령이 난 곳이고 자란 곳이며 뜻을 펼친 곳》이며 《이곳에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너두리로 박근혜 잔당의 환심을 사보려고 피대를 들구기도 하였다.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고통의 목소리를 더이상 외면하기 어려웠다는니,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을 모두 국정문란, 적폐로 보는것은 잘못된것이라는니, 지금은 국민통합이 필요한 때 인것만큼 더이상 탄핵을 논하지 말자느

니 하며 제놈의 구린내나는 정체를 적라라하게 드러내놓았다. 이를 두고 남조선각계가 《역시 황교안은 박근혜의 공범》, 《유신의 력에 붙어사는 기생충》이라고 명비난을 퍼붓고있음은 물론이다.

이자는 구린 입 지린 입 마구 놀려대던 나머지 허바닥이 뽀허 날아날 망언도 서슴지 않고 췌쳐대고있다.

불안하고 비굴한 평화다, 어떤 경우에도 북의 핵무기를 머리에는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갈수 없다,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기염을 토하듯 못해 무언하게도 우리의 최고준엄에 대고 샅대질하는 천벌맞을짓까지 해댔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하늘 무서운줄도 모르고 마구 짓어대는 황교안놈은 확실히 정치못가자임이 틀림없다.

대체 황교안이란 어떤 작자인가. 그 알량한 몸값은 얼마짜리이고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는 놈팽이인가. 제 얼굴도 제 목소리도 없는 박근혜의 그림자일뿐이다.

무릇 누가 《대통령》야망을 품고 정치관에 나서려면 그 무슨 소신과 철학이라는것도 있어야 하고 제 나름대로 쌓은 인격과 정품이라는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황교안은 제놈의 몸값이란 아

무것도 없는 허수아비로서 기껏 내들 것이란 박근혜가 띄워준 장관, 총리의 방기지와 그 무슨 대행이라는 누더기웃이 전부이다.

물론 어떤 정치인들의 경우 모자라는 제몫값을 다른 사람의 후광을 받아 보충하는이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황교안은 가장 더러운 박근혜 후광을 칠성관처럼 지고있는 가련한 고기덩어리이다.

회비극은 문동병환자의 몸에 난 헌데처럼 덕지덕지 달고있는 박근혜딱지마저 떼버리면 황교안이라는 존재는 그저 권력이라는 덕에 올라보려고 날개를 퍼덕이는 한마리 수탉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자가 박근혜의 총애를 받은것을 보아도 그 무슨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노년의 가러운 잔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환관노릇을 잘했기때문이다.

년의 예비 박정희역도의 《5.16군사정변》을 《혁명》으로 치켜세웠는가 하면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등의 조작과 통합진보당을 《총부세력의 집합체》로 매도하여 해산시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책등을 앞장서서 강행하는 등 박근혜의 권력유지의 돌격대로 맹활약함으로써 년의 지지뿐만 아니라 목에 얼굴을 묻고 사는 《행운》을 누리울수 있었던것이다.

박근혜가 최순실이 시키는대로 놀어난 폭두각시였으니 결국 황교안은 폭두각시의 폭두각시인셈이다.

한마디로 황교안은 박근혜의 허상 즉 《남자박근혜》일뿐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황교안이 달고있는 박근혜딱지로 하여 내부가 벌동지 쭈서놓은것처럼 되었다.

한때 인물난을 극복한다고 하면서 황교안을 《보수를 대표할수 있는 인물》이라고 잔뜩 주어주며 당에 받아들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 우환단지를 끌어들이는 꼴이 되었다.

황교안이 정치경험이란 전혀 없는 생둥이이고 지난 시기 못된짓만 골라하다나니 도처에 적수가 세갈거리는데다가 가장 팔치거리하는 박근혜의 공범자인것으로 하여 《자유한국당》이 《도르박근혜당》으로 회귀하여 《보수수판》의 표적으로 된것이다.

가뜩이나 존심이 위태로운 역적당에 《시한탄》같은 황교안이 들어왔은즉 만큰더 더욱 날아가게 되었다. 권력야망은 집보다 못지 않지만 온실의 꽃처럼 고이 자란 허약한 체질의 황교안이 《자유한국당》내의 당권쟁탈전이라는 진흙탕싸움에서 몸건사나 제대로 하겠는지의 문이다. 비루먹은 강아지같은 황교안이 당대표되었다고 하는판인데 나는 배이

없다더냐 하는 식으로 오레동안 정치판에서 굴러먹은 역적당내의 야실가들이 저저마다 당권쟁탈전에 뛰어들면서 싸움판이 더욱 불탄 화계는 되었다.

그 약한 체질에 어떻게 보수우두머리가 되겠느냐는 못사람들의 비난에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사람이 누구냐.》가 아무리 허세를 피워도 당권이라는 뼈다귀를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닥치는대로 물어메치는 니천투구의 싸움판에서 금수저를 물고 자란 생남같은 황교안이 무참하게 얻어맞아 퍼터지고 살점이 떨어져나가게 되었으니 그 꼴이 실로 가관일것이다.

《국정통단사건》으로 망하게 된 박근혜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했냐.》하며 닭동같은 눈물을 흘렸던것처럼 황교안도 당내에서 주어맞고 민심에 얻어맞아 온몸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정계에 들어왔다.》하고 후회할 때가 머지않아 올것이다. 우연인가 필연인가.

보수에 인물이 아무리 없거로서니 박근혜와 함께 순장되던 황교안따위가 년의 이투성이웃을 걸치고 무덤에서 뛰어내리고 력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려야 할것은 이 피이한 현상은 그 무슨 운명의 작간인가. 권력을 부여받을 아무런 자격도 명

분도 능력도 없는 시정잡배, 민심의 심판을 받고 정치적수명을 다 산 숨쉬는 화석으로 치박혀있던 이자에서 그 무슨 운수가 터여 《보수의 구심점》으로 자처하며 《대통령》감투까지 쓰겠다고 날치게 되었는가.

《라라의 등을 부르드리는 마지막 푸라기》라는 말이 있다.

황교안은 자기 시대를 다 산 보수세력의 최후종말을 위해 필요한 마지막 푸라기인것이다.

지금 조선반도에 평화변영의 격류가 일어번지면서 분렬과 적대에 기생하여 살던 보수세력은 저들의 생태계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최후발악을 하고있다.

새것이 기다리는 눈부신 미래를 국도로 중요하며 오직 과거의 함옥에로밖에 갈수 없는 보수가 낡은 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황교안을 내세운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제 보수가 력사에 이바지할것이란 더욱 흑색어문드러져 새것의 거름으로 되는것뿐이다.

비록 몸통은 보잘것없지만 최악의 무게 산파도 같은 황교안의 등장으로 마치막을 깔며 겨우 지탱하던 보수의 등허리는 마침내 부러져 영영 망해버리고말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보수의 장송곡은 이미 울리기 시작하였다.

조남진 (《로동신문》에서 전제)

남조선에서 보수세력들이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미국이 요구하는데로 《방위비분담금》을 섬겨바쳐야 한다고 떠들고있어 민심의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패거리들은 《방위비분담금》은 돈문제거나 아니라 《한미동맹》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가 하는 문제이다. 《《한》미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서는 안된다.》고 야무져기를 치면서 《북에 퍼주지 못해 안달이 난 《정부》가 주 《한》미군주둔비용을 그렇게 아까운지 묻고싶다.》고 목에 피대를 들구고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과 전문보도 자처하는자들도 《방위비분담금》은 핵우산을 비롯한 미국의 강력한 억제력을 활용하는 비용이다, 남북협력기금사입비를 전년

보다 증액원성한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에서 양보하지 않는것은 《한》미동맹을 통한시하는 태도라고 떠들고있다.

한편 《재향군인회》와 《대한민국정우회》, 《한미안보연구동아리》 등 어중이떠중이들도 《《한미동맹》 강화추진회》와 공동회장발표대회의 광대놀음을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과 전문보도 자처하는자들도 《방위비분담금》은 핵우산을 비롯한 미국의 강력한 억제력을 활용하는 비용이다, 남북협력기금사입비를 전년

을 런일 벌려놓고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의 요구대로 지급하고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할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추대를 부리고 있다. 그야말로 사대에 썰리고 친미에 환장한자들의 비굴하고 नी절한 아첨질이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각계는 《방위비분담금》증액을 강박하는 미국을 향해 《주권을 무

시하는 행위》, 《날강도적인 행태》라고 격분을 금치 못하며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 남에도는 《방위비분담금》을 즉시 반환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1월 31일에는 청년학생들이 《방위비분담금 삭감할것》, 《주권침해 통일방해 주한미군을 즉각 철수하라》는 구호를 웨치며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남조선에서는 경제위기의 장기화조로 인민들의 생활형편이 날로 악화되고있다. 실업사태가 심화되고 빈곤과 자살률도 계속 높아지고있다.

남조선경제의 최악의 과국상태는 지난 9년간 리명박, 박근혜보수 《정권》의 반인민적인 정책과 부패무능으로 하여 벗어났지 않는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세력들이 흑심한 경제위기와 민생고에 시달리는 남조선인민들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침략군, 강점군이 풍청거릴수 있게 돈을 더 쉽게 바쳐야 한다고 고아대는것이 야말로 얼빠진 수작이 아닐수 없다.

조선반도정세가 긴장완화와 평화로로 전환되고있는 오늘 《방위비분담금》의 증액은 곧 대결과 전쟁을 부르는 《침략비》, 《전쟁비》의 증액으로서 더우기 용납될수가 없다.

남조선 각계층은 인민의 존엄과 리익은 인종에도 없이 외세의 바지개행위를 부여잡고 추악한 진명을 부지해보려는 보수역적무리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누가 《퍼주기》하는가

서울의 풍산미군기지앞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를 반대하여 시위를 벌렸다. 참가자들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그것을 늘릴것을 강요해왔다고 하면서 파멸적인 행위를 당장 견여 치울것을 요구하였다. 이보다 앞서 경남진보련합성원들도 집회를 열고 《국민헌례 빨아먹는 백해무의

한 미군은 즉시 나가라.》, 《미군철수》 등의 구호를 웨치며 미국의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갔다. 1월 31일에는 청년학생들이 《방위비분담금 삭감할것》, 《주권침해 통일방해 주한미군을 즉각 철수하라》는 구호를 웨치며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바지입은 박근혜》의 출현

최근 박근혜 《정권》 시기 《국무총리》를 하던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대표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선거전에 공식 나섰다. 그는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미국이 요구하는데로 《방위비분담금》을 섬겨바쳐야 한다고 떠들고있어 민심의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름을 두고 적지 않은 사람들속에서는 《바지입은 박근혜의 출현》이라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다. 결코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황교안이 어떤 인물인가. 박근혜 《정권》 시기 법무부 장관에 이어 《국무총리》자리에 앉아있다가 《대통령대행》까지 한자이다. 그가 박근혜 밑에 있으면서 한것만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섰던 의로운 인사들을 처형하고 독재시대를 되살리는 등 박근혜의 권력유지의 돌격대로 맹활약한것뿐이다.

황기에 민심은 2017년 박근혜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을 때 그의 시너노릇을 하던 황교안에게도 함께 정치적사형선고를 내렸었다. 그런데 박근혜와 나란히

상을 되살려놓으려고 할것이다. 《《한》반도평화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고있다.》는 그 한마디의 너두리에도 온 세계가 격찬하는 오늘이 조선반도 평화변영의 흐름을 부정하고 대결과 전쟁의 낡은 과거를 되살리려고 발버둥치는 대결광신자의 색은 속후미 흰히 들어다보인다.

많은 남조선사람들이 황교안의 출마판대국을 두고 《시대착오적이다.》, 《황당하고 교활하고 안하무인이다.》고 하면서 《출마선언문을 쓸게 아니라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며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당연하다. 보수세력내부에서까지도 《너무 무책임하다.》, 《차치하면 당이 사분오렬될수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남조선에서 민심의 초췌은 꺼지지 않았다. 그 초췌의 바다에 라죽기 전에 황교안은 정치무대에 서 영영 사라지는것이 좋을것이다.

임철범

남조선주둔 미군유지비삭감과 미군철수를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의 의하면 청년학생들이 1월 31일 미국의 남조선주둔 미군유지비인상압박행동을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미국을 규탄하는 청년학생 일동》은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건물앞에서 남조선주둔 미군유지비 전액 삭감하라, 주권침해, 통일방해하는 미군은 즉각 철수하라는 구호를 웨치며 시위를 벌렸다. 평화문광장에서도 청년학생들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의 날강도적인 주한미

군지원금요구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하였다.

회견문은 미국이 미군유지비를 올릴것을 《정부》에 강박하고있다고 밝혔다.

미군이 이 땅의 방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권위주의를 위해 주둔하고있으며 전쟁을 불러오는 화근이라고 하면서 회견문은 미국이 날강도적인 미군유지비인상요구를 규탄한다고 지적하였다. 미군이 남북관계문제를 두고 《승인》을 운운하며 주

권침해, 내정간섭을 일삼고 통일을 방해할수 있는것도 이 땅에 미군이 존재하기때문이라고 회견문은 밝혔다.

회견문은 지난해 남북수뇌회담을 통해 조선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이 열릴 상에서 미군이 주둔할 명분은 더이상 없다고 강조하였다. 미군주둔비를 인상이 아니라 전액 삭감하고 미군을 당장 철수시키라고 회견문은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야 한다고 고아대는 보수세력들이야말로 친미사대에 미쳐버린자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경제위기의 장기화조로 인민들의 생활형편이 날로 악화되고있다. 실업사태가 심화되고 빈곤과 자살률도 계속 높아지고있다.

남조선경제의 최악의 과국상태는 지난 9년간 리명박, 박근혜보수 《정권》의 반인민적인 정책과 부패무능으로 하여 벗어났지 않는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세력들이 흑심한 경제위기와 민생고에 시달리는 남조선인민들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침략군, 강점군이 풍청거릴수 있게 돈을 더 쉽게 바쳐야 한다고 고아대는것이 야말로 얼빠진 수작이 아닐수 없다.

조선반도정세가 긴장완화와 평화로로 전환되고있는 오늘 《방위비분담금》의 증액은 곧 대결과 전쟁을 부르는 《침략비》, 《전쟁비》의 증액으로서 더우기 용납될수가 없다.

남조선 각계층은 인민의 존엄과 리익은 인종에도 없이 외세의 바지개행위를 부여잡고 추악한 진명을 부지해보려는 보수역적무리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오늘 평화로운 세계에 사는것은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으로, 거스를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나라들도 있다. 일본이 바로 그러하다.

지난 1월초 일본 수상 아베는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미래상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야 할 때》라고 하면서 헌법개정을 본격적으로 다그칠 의욕을 로발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아베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이 새해에 과연 어떤 길로 가려 하는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인론들은 아베가 2020년까지 헌법헌법에 《자유대》의 존재를 합법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전쟁포기와 군대보유금지, 핵전력부인》을 규정한 《헌법 9조》를 수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해중에 발의하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이

것은 일본을 《보통국가》, 나아가서 《전쟁가능국가》로 만들려는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일본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있는 《방위비》도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지난해말 일본은 올해 예산안가운데 5.18%에 해당하는 5조 2 574억부의 막대한 돈을 《방위비》로 책정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1.3%나 증가한것으로서 여기에

는 2023년부터 운용에 들어갈 예정인 지상배치형유격미사일체제도입과 조기경보기 《E-2D》 9대, 스텔스전투기 《F-35A》 6대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일본이 지난 20세기 초선을 무력으로 강점하였으며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인민들에게 희생과 고통, 불행을 안긴 전범국이라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일본이 세계의 강력한 항의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피로 얼룩진 과거범죄에 대해 충분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있다. 오히려 제침열에 들떠 영도야욕을 다치며 끊임없이 무력증강과 법개정까지 다그치고있으니 이런 나라가 차고도 뭘 총창점이 어디였는가 하는것은 변한 일이다.

일본이 침략의 전철을 다시 밟는다면 그것은 밝은 미래가 아니라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위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경로문제를 둘러싼 로일사이의 모순과 대립

로씨야의무상 셰르게이 라브로프와 일본의상 고노 다로는 로씨야대통령을 만나 두나라사이의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여기서 기초로 삼은것이 1956년에 체결된 쏘일공동선언이라고 한다.

이것을 결코 최근 일본당국 관련하여 모스크바는 남부쿠릴렬도에 대한 자기의 주권을 토의하려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일본과 남부쿠릴렬도의 주권문제를 토의할수 없다. 이 렬도는 로씨야의 령토라고 그는 인정하였다.

알려진것처럼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로씨야의 남부쿠릴렬도 4개 섬이 저들의 령토라고 하면서 그 《반환》에 대해 집요하게 떠들어왔다. 하지만 로씨야의 강경한 립장으로 하여 지금까지 자기의 목적을 이룰수 없었던 일본은 오늘날 그 무슨 교섭과 협력의 간판을 내들고 령토야망을 이루어보려고 시도하고있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이 바로 두 나라사이의 평화조약체결을 둘러싼 론쟁이다. 지금까지 로씨야와 일본은 평화조약체결이 선차나, 령토문제해결이 먼저나 하는것을 놓고 거둬되는 론의를 해

국제단신

로씨야의무상 셰르게이 라브로프와 일본의상 고노 다로는 로씨야대통령을 만나 두나라사이의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여기서 기초로 삼은것이 1956년에 체결된 쏘일공동선언이라고 한다.

이것을 결코 최근 일본당국 관련하여 모스크바는 남부쿠릴렬도에 대한 자기의 주권을 토의하려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일본과 남부쿠릴렬도의 주권문제를 토의할수 없다. 이 렬도는 로씨야의 령토라고 그는 인정하였다.

알려진것처럼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로씨야의 남부쿠릴렬도 4개 섬이 저들의 령토라고 하면서 그 《반환》에 대해 집요하게 떠들어왔다. 하지만 로씨야의 강경한 립장으로 하여 지금까지 자기의 목적을 이룰수 없었던 일본은 오늘날 그 무슨 교섭과 협력의 간판을 내들고 령토야망을 이루어보려고 시도하고있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이 바로 두 나라사이의 평화조약체결을 둘러싼 론쟁이다. 지금까지 로씨야와 일본은 평화조약체결이 선차나, 령토문제해결이 먼저나 하는것을 놓고 거둬되는 론의를 해

미국 우주미사일방위 체계배비계획 비난

로씨야의무상이 1월 25일 공보를 발표하여 미국의 우주미사일방위체계배비계획을 비난하였다.

공보는 미국이 《미사일방위검토보고서》에서 우주에 발사단계에 있는 각종 미사일들을 소멸하기 위한 우주미사일방위체계를 배비할것을 드러내놓은것과 관련하여 이것은 우주공간에 대한 지배권을 실현하려는 시도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제 앞서 26일 알제리의

여러 나라에서 레로반대투쟁

에집트군대가 1월 27일 시나이반도의 북부지역에서 레로분자들의 온신적에 대한 공습작전을 벌려 2명의 악당두목을 처단하였다고 밝혔다.

이제 앞서 26일 알제리의

팔레스티나 이스라엘정착민들의 공격행위 규탄

팔레스티나정부가 1월 26일 성명을 발표하여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정착민들의 공격행위를 규탄하였다.

성명은 최근 요르단강서안 지역의 라발라호시에서 이스라엘군의 비호하에 정착민들이 팔레스티나인들이 사는 마을에 쳐들어가 좋은 마구 쏘아대며 란동을 부린데 대

에집트군대가 1월 27일 시나이반도의 북부지역에서 레로분자들의 온신적에 대한 공습작전을 벌려 2명의 악당두목을 처단하였다고 밝혔다.

이제 앞서 26일 알제리의

이제 앞서 26일 알제리의

이제 앞서 26일 알제리의

이제 앞서 26일 알제리의

본사기자

자력갱생의 동음을 높이 울려간다

* 평양곡산공장을 찾아서 *

평양곡산공장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식료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얼마전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이러한 평양곡산공장을 찾은 우리는 당과류생산에서 선행공정인 강냉이가공공정을 돌아보았다. 강냉이가공공정은 강냉이로부터 물엿을 비롯한 당제품생산에 필요한 농마를 얻는 선행공정이다. 강냉이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식용기름과 집집증액이 생산하여 최대량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매 공정마다 바쳐온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을 잊지 못했다.



김경숙평양제사공장 노동자합숙

이 행성에 유일무이하게 모든 근로자들이 실업이라는 말 자체도, 일자리걱정이라는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창조적인 노동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공화국이다.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희망과 능력, 소질에 따라 안전 조건을 보장하며 마음껏 창조의 보람을 느끼고있다. 오늘 취업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일자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있다. 노동할 나이에 이른 모든 공민들은 성별, 민족별, 사회적소속 여하에 관계없이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 조건을 보장받고있다.

국가는 법정의무에 따라 해마다 고졸중학교졸업생들과 대학졸업생들 개 개인의 희망과 능력, 전공을 고려하고 합당한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있다.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가 새로 입직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건기관의 확인보증에 그의 전공분과 능력에 따라 그리고 신체조건에 맞

은 일자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노동부문의 특성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 7시간, 6시간 등으로 차이를 정하고있다. 7시간, 6시간 등 짧은 로동시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로동시간은 8시간로동제와 같이 취급되며 생활비의 추감은 동반하지 않고있다.

이처럼 공화국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보장하기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있으며 다른 나라들에서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되고있는 실업은 사전의 울림말에서나 찾아볼수 없다.

로동이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간주되고있는 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조성을 내어 일하고있다.

보람찬 일터에서 참다운 로동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희열에 넘쳐있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목격한 스위스의 한 정치인은 조선의 근로자들은 복을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선에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실업자가 거지, 방랑자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으며 부

익부, 빈익빈과 같은 심각한 사회질문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김경숙평양제사공장을 돌아보며 받은 충격이 매우 크다. 수영장까지 갖춘 편의시설과 문화회관을 비롯한 정서생활기점들이 훌륭히 꾸려져있는 공장은 생산현장이 아니라 로동자궁전을 방불케 하였다. 좁잡을데 없이 훌륭한 생활환경이 보장되고 로동자들이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원격대학교육까지 받는다니 놀랍다. 근로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향유하는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희한한 세계였다.

생산에 앞선 근로자들의 건강문제, 생활문제가 먼저 논의되고 풀어주는것을 철칙으로 삼는 조선의 정책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지구상에는 로동자라는 이유로 가진자들의 《치부의 수단》, 《말하는 도구》로 취급받는 비참한 운명들이 허다하다. 그러나 조선의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 일터의 주인으로 긍지높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다.

하기에 조선의 공민들은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자본가들의 리용추구를 위한 생산단위나 아니라 근로자들이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세계적으로 제일 부유하다고 하는 나라에서도 만성적인 실업자수가 수백만명에 달하고있다.

삶의 권리를 빼앗긴 많은 사람들이 살길을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거나 비판과 질망에 빠져 반인민적인 사회를 저주하며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을 때 극소수의 부자들은 근로대중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재부를 탕진하고있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의 실상이다.

현실은 공화국이야말로 근로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생활이 활짝 꽃피어나는 인민의 이상향임을 보여 주고있다.

김창일

《통일신문》가 만난 사람들

역센 푸른 잎에 애국의 마음 얹는 소나무화가

지난 일요일 모란봉출신의 정서는 참으로 이채로웠다. 겨울철이라고 하지만 푸근한 날씨가 며칠째 지속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소나무 우거진 모란봉에 올랐다.

모란봉의 산길을 따라 걸던 기자는 소나무를 그리고 있는 한 젊은 화가에게서 걸음을 멈추었다. 여러명의 사람들이 그의 그림솜씨에 심취되어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참신하고 기발한 구도, 선명하면서도 친근한 색형상, 힘있고 활달한 붓대름새로 그려가는 소나무그림을 바라보며 둘러선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화가는 《조선의 기상이 차넘치는 소나무를 훌륭히 창작하는것이 목표》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소나무화가로 불리우는 리경남선생에 비해

면 아직 자기는 멀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겸손에서만이 아닌 진정이 담긴 그의 말에 화자는 자연히 소나무화가에 대한것으로 번져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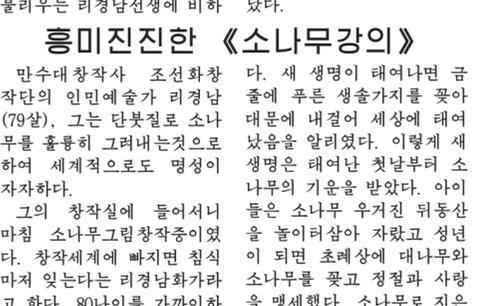
소나무화가! 소나무를 얼마나 잘 그리면 소나무화가로 불리우랴.

그의 말에 의하면 리경남 화가는 나이 여든을 가까이 하고있는데 지난 수십년간 수많은 소나무그림을 창작하여 내놓았다고 한다. 소나무 화가에 대한 호기심이 부쩍 동반 기자는 그를 찾아 떠났다.

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금줄에 푸른 생줄기를 꽂아 때문에 내걸어 세상에 태어났음을 알리었다. 이렇게 새 생명은 태어난 첫날부터 소나무의 기운을 받았다. 아이들은 소나무 우거진 뒤동산을 놀러다니며 자랐고 성년이 되면 조례상에 대나무와 소나무를 꽂고 정결과 사랑을 맹세했다. 소나무로 지은 집에서 태어나 숲일라는 연기를 맡으며 한생을 보낸 뒤 죽으면 역시 소나무 우거진 산에 묻힌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다.

알고보니 그는 소나무와 관련하여 모르는것이 없는 《소나무박사》였다. 소나무의 발생력사로부터 소나무 이름의 유래, 소나무의 분류와 생물학적특성, 소나무의 심기와 보호에 이르기까지 모르는것이 없었다. 흥미진진한 그의 《소나무강의》에 시간가는줄 몰랐다.

그에 의하면 소나무를 남달리 사랑해온 우리 겨레는 소나무를 즐겨 그려온 하였



리경남화가가 창작한 조선화 《사시절 푸르름 변치 않는 소나무》

역센 푸른 잎에 애국의 마음 얹는 소나무화가

15세기 이상화의 《달밤에 소나무를 거닐며》, 17세기말~18세기 정선의 《사직단의 소나무》, 18세기 신윤복의 《소나무와 매》, 19세기 허련의 산수화 《산갈이》들에도 모두 소나무가 형성되어있다.

수천그루의 소나무를 그린 화가는 《소나무는 조선화로 그려도 멋있고 유화로 그려도 멋있는 이상적인 묘사대상이다. 그래서 미술가들은 자기 작품에 소나무를 즐겨 그리곤 한다.》며 소나무를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었다.

그에 의하면 소나무를 그릴 때 소나무잎은 소담해야 하며 소나무의 정수리를 고풍하게 하여 뻗듯이 세우지 말아야 한다. 화려하게 그리는데 중심을 두는 버드나무와 달리 소나무그림에서는 소나무의 특성이 잘 살아나는 뿌리그림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소

나무줄기를 잘 그리는 데 주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나무껍질을 그릴 때 붓질을 진성진성하는것과 함께 슬쩍 처리하거나 붓놀림을 시원하고 명랑하게 하여 소나무를 분명하게 그릴때 대 한것 등 들을수록 소나무그림에 정통한 화가가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46년간의 화가생활기간에 그가 창작한 소나무는 수천그루가 넘는다고 한다. 그의 개인화첩도 보았는데 역시 소나무그림이 태반이었다.

리경남화가가 그린 소나무그림들은 독특한 구도와 힘있고 물동적이며 로숙한 기법으로 하여 미술계에 널리 알려졌었다.

어떤 곡진한 사연이라도 있어 한생 소나무를 그린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에 그는 추억깊은 어조로 이야기 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그

그가 창작한 조선화 《소나무》만 놓고보아도 천년바위에 역세게 뿌리박은 소나무의 우물거불한 줄기와 길게 드리워진 가지들, 무성한 솔잎 등 세월의 비바람을 깨끗이 이겨내며 서있는 소나무의 역세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물결기법의 특질을 살려 한두번의 붓질로 소나무의 형태학적특징과 색감, 질감, 립체감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작품은 보면 볼수록 깊은 사색의 세계에 빠져들게 한다.

그의 소나무그림들중에서 국보적인 작품으로 등록된 것이 적지 않다. 중국, 로씨야, 뽀스가, 말레이시아 등에서 열린 전람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리경남화가는 사람들이 소나무그림을 많이 내놓은 자기 소나무화가라고 부르는 데 조선의 화가라면 누구나 소나무를 사랑하고 즐겨 그리고있다고, 모두가 소나무 화가라고 덧붙였다.

조선의 자랑, 국가의 상징인 소나무를 훌륭하게 그리는데는 그만인 아닌 이 나라 화가 모두의 꿈이고 희망인 것이다.

리경남화가는 말한다. 《강대한 나라가 있어 인민의 존엄이 떨쳐지고 국수인 소나무도 빛나는 것이다. 소나무의 강인한 기상으로 나라의 기상을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승리만을 떨쳐가는 우리 조국이다. 내 나라의 불멸의 기상, 승리의 기상을 안고 여생을 소나무그림창작에 바쳐가겠다.》

본사기자 홍병식

역센 푸른 잎에 애국의 마음 얹는 소나무화가

15세기 이상화의 《달밤에 소나무를 거닐며》, 17세기말~18세기 정선의 《사직단의 소나무》, 18세기 신윤복의 《소나무와 매》, 19세기 허련의 산수화 《산갈이》들에도 모두 소나무가 형성되어있다.

수천그루의 소나무를 그린 화가는 《소나무는 조선화로 그려도 멋있고 유화로 그려도 멋있는 이상적인 묘사대상이다. 그래서 미술가들은 자기 작품에 소나무를 즐겨 그리곤 한다.》며 소나무를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었다.

그에 의하면 소나무를 그릴 때 소나무잎은 소담해야 하며 소나무의 정수리를 고풍하게 하여 뻗듯이 세우지 말아야 한다. 화려하게 그리는데 중심을 두는 버드나무와 달리 소나무그림에서는 소나무의 특성이 잘 살아나는 뿌리그림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소

나무줄기를 잘 그리는 데 주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나무껍질을 그릴 때 붓질을 진성진성하는것과 함께 슬쩍 처리하거나 붓놀림을 시원하고 명랑하게 하여 소나무를 분명하게 그릴때 대 한것 등 들을수록 소나무그림에 정통한 화가가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46년간의 화가생활기간에 그가 창작한 소나무는 수천그루가 넘는다고 한다. 그의 개인화첩도 보았는데 역시 소나무그림이 태반이었다.

리경남화가가 그린 소나무그림들은 독특한 구도와 힘있고 물동적이며 로숙한 기법으로 하여 미술계에 널리 알려졌었다.

어떤 곡진한 사연이라도 있어 한생 소나무를 그린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에 그는 추억깊은 어조로 이야기 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그

그가 창작한 조선화 《소나무》만 놓고보아도 천년바위에 역세게 뿌리박은 소나무의 우물거불한 줄기와 길게 드리워진 가지들, 무성한 솔잎 등 세월의 비바람을 깨끗이 이겨내며 서있는 소나무의 역세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물결기법의 특질을 살려 한두번의 붓질로 소나무의 형태학적특징과 색감, 질감, 립체감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작품은 보면 볼수록 깊은 사색의 세계에 빠져들게 한다.

그의 소나무그림들중에서 국보적인 작품으로 등록된 것이 적지 않다. 중국, 로씨야, 뽀스가, 말레이시아 등에서 열린 전람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리경남화가는 사람들이 소나무그림을 많이 내놓은 자기 소나무화가라고 부르는 데 조선의 화가라면 누구나 소나무를 사랑하고 즐겨 그리고있다고, 모두가 소나무 화가라고 덧붙였다.

조선의 자랑, 국가의 상징인 소나무를 훌륭하게 그리는데는 그만인 아닌 이 나라 화가 모두의 꿈이고 희망인 것이다.

리경남화가는 말한다. 《강대한 나라가 있어 인민의 존엄이 떨쳐지고 국수인 소나무도 빛나는 것이다. 소나무의 강인한 기상으로 나라의 기상을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승리만을 떨쳐가는 우리 조국이다. 내 나라의 불멸의 기상, 승리의 기상을 안고 여생을 소나무그림창작에 바쳐가겠다.》

본사기자 홍병식

역센 푸른 잎에 애국의 마음 얹는 소나무화가

15세기 이상화의 《달밤에 소나무를 거닐며》, 17세기말~18세기 정선의 《사직단의 소나무》, 18세기 신윤복의 《소나무와 매》, 19세기 허련의 산수화 《산갈이》들에도 모두 소나무가 형성되어있다.

수천그루의 소나무를 그린 화가는 《소나무는 조선화로 그려도 멋있고 유화로 그려도 멋있는 이상적인 묘사대상이다. 그래서 미술가들은 자기 작품에 소나무를 즐겨 그리곤 한다.》며 소나무를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었다.

그에 의하면 소나무를 그릴 때 소나무잎은 소담해야 하며 소나무의 정수리를 고풍하게 하여 뻗듯이 세우지 말아야 한다. 화려하게 그리는데 중심을 두는 버드나무와 달리 소나무그림에서는 소나무의 특성이 잘 살아나는 뿌리그림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소

나무줄기를 잘 그리는 데 주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나무껍질을 그릴 때 붓질을 진성진성하는것과 함께 슬쩍 처리하거나 붓놀림을 시원하고 명랑하게 하여 소나무를 분명하게 그릴때 대 한것 등 들을수록 소나무그림에 정통한 화가가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46년간의 화가생활기간에 그가 창작한 소나무는 수천그루가 넘는다고 한다. 그의 개인화첩도 보았는데 역시 소나무그림이 태반이었다.

리경남화가가 그린 소나무그림들은 독특한 구도와 힘있고 물동적이며 로숙한 기법으로 하여 미술계에 널리 알려졌었다.

어떤 곡진한 사연이라도 있어 한생 소나무를 그린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에 그는 추억깊은 어조로 이야기 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그

그가 창작한 조선화 《소나무》만 놓고보아도 천년바위에 역세게 뿌리박은 소나무의 우물거불한 줄기와 길게 드리워진 가지들, 무성한 솔잎 등 세월의 비바람을 깨끗이 이겨내며 서있는 소

설 명 절 의 흥 취 나 는 율 놀 이 풍 경

지난 2월 5일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민족명절인 설 명절이었다. 이날 각지의 인민들은 예로부터 묵은해를 보내고 희망을 안겨주는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전해오는 설 명절을 기쁨과 즐거움속에 보내왔다.

새옷을 차려입고 가족, 친척들과 이웃집의 웃사람들, 스승을 찾아가 세배를 드리는 아이들이며 복을 많이 받으라고 덕담을 하는 어른들...

《아버님, 새해에 건강하십시오.》, 《새해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꽃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사말들에도 따뜻한 정이 흘러넘치었다.

떡국, 약과, 강정, 수정과와 같은 설 명절의 전통적인 민족음식도 좋지만 이날을 이채롭게 장식한 것은 민

속놀이였다.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설 명절날에 율놀이, 널뛰기, 장기와 연피우기를 비롯한 민속놀이들을 즐겨하곤 하였다.

특히 율놀이는 남녀로소 할것없이 누구나 다 할수 있는 대중적인 오락으로서 우리 겨레가 사랑하는 민속놀이들중의 하나이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세나라시가지전부터 율놀이를 하여왔다.

율놀이에서 쓰이는 《도》, 《개》, 《질》, 《웃》, 《웃》, 《모》라는 말은 옛날 부여의 관직명에서 따왔다고도 하고 돼지, 개, 양, 소, 말의 다섯가지 종류의 짐승을 다섯 마에 나누어주어 번식시킬 목적으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놀이방법이 다양하고 놀이

도구가 간단한 율놀이는 민지는 기교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 가게 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말판을 잘 살펴야 하는만큼 사고력을 더욱 발전시켜준다.

민족의 우수한 전통이 활짝 꽃피고있는 공화국에서 율놀이풍경은 어디서나 볼수 있다.

이번 설 명절날에 우리는 율놀이경기로 온 아빠트가 흥성이는 평양시 평천구역 북성2동 15인민반을 찾았다.

우리와 만난 리설영인민반장은 설 명절전부터 총별로 한림이 되어 승자전의 방법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예선경기를 거쳐 결승단계에 올라온 2층과 6층사이에 승부를 가르는 열기 만 경기가 한창이라고 말했다.

《모야!—》

《아—》

《아니, 이쪽 말을 써야 돼.》

...

결승경기가 진행되는 3층 3호집에 들어서니 율놀이판을 둘러싸고 선수들과 응원하는 사람들모두가 떠들썩하고 있었다.

굴러나서 엎어질듯 하다가 쫓겨나고 쫓겨질듯 하다가 엎어지는 율가락을 따라가며 긴장하게 지켜보는 눈빛들, 《도》나 《후도》가 나올 때의 아쉬움과 《승》, 《모》가 나왔을 때의 기쁨의 탄성이 엇갈려 분위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고조되어 갔다.

그가운데는 안타까와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 손뼉을 치며 기뻐서 환성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5층 2호에서 산다는 서연희녀성은 율놀이를 하면서 한바탕 웃고난 후 취가 나면서 가정과 아빠트, 온 동네에 기쁨과 화목이 넘쳐나고 웃으며 말하였다.

설 명절의 흥취나는 율놀이 풍경, 여기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이 날이 갈수록 더욱 활짝 꽃피고있는 공화국의 참모습이 비껴 있었다.

본사기자 김진혁



일본에 존재하는 고구려촌

일본 도쿄에서 북서쪽으로 40여km 떨어진 사이타마현 히다카시에 고구려촌이 있는데 이것은 1300여년전에 고구려왕국이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한다.

666년에 사절단으로 일본에 간 고구려왕족 약방은 도쿄주변에서 흩어져살던 고구려사람들을 모아 무사시노별관일대에서 정착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후 이곳은 고려촌과 고려천촌으로 이루어진 고구려촌으로 확장되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정부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유민들을 환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일본에 말라기와 농업기술, 도자기술을 보급하고 건축과 미술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고구려인들의 영향으로

사람이 살지 않던 병방의 무사시노별관은 명치시대에 이르러 일본에서 쌀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곡창지대로 되었다고 한다.

약방이 죽은 후 고구려사람들은 그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고려신사》라는 사당을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 후손들에 의하여 보존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철마의 꿈 (2)

글 조정협, 그림 리성일

렐차를 향해 모은 사람들이 승강구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왜서인지 그 때까지도 기다리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검차마를 든 사람들이 축합이며 차바퀴 등을 검사하며 바빠 돌아가는 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수연에게는 어찌만 해도 자기를 땀때했던 늙은이가 어떻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가지 생각이 윤수연의 뇌리를 치며 떠올랐다. 그는 윤수연과 성이 다를 뿐 아버지가 똑 같았다. 하지만 소개자로부러 한수연이라는 그 녀인의 이름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녀인을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 고향이 경기도 안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연은 심중해졌다.

눈보라소리 스산하던 어린 시절의 어느날이 절주하는 렐차마차의 어느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깊은 밤 문을 두드리던 한 녀인, 퍼렇게 언 그 얼굴.

그때 아버지는 놀랄게도 그 녀인을 무척비하게 몰아내었다. 그걸이 선명한 아버지 기억이 아니었던가.

그 일을 떠올리자 또 하나의 모습이 거기에 겹쳐들

었다. 림종을 앞두고 피복을 신음하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한수연, 나를 용서해.》

피곳이 늙은이가 그 한수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윤수연은 그에 대해 더 알아볼수 없었다.

무안을 당하고 그 집 문턱을 나서서 수연의 마음속에는 팽만한 늙은이에 대한 고까운 감정이 가득 쌓여 있었다.

끊임없이 오고가는 렐차들을 바라보는 윤수연에게는 그가 정말 한수연일수도 있으며 자기를 알아보고 만나려는것일수 있다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하지만 이내 도리머리를 저었다. 오늘의 자기 모습에서 옛 시절의 어린 소녀를 알아본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나를 만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하필 《평양향》 기차에서 만나려는것일까.

머리속을 떠도는 상념들을 깨치며 출발신호가 울렸다. 역후의 여기저기에 울기 중이 서있던 사람들이 서둘러 기차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초조한 눈길로 승객들을 바라보던 수연은 백발의 한 녀인이 기관차 뒤차량의 승강구앞에서 서서대는것을 보

았다. 이내 녀인은 젊은이들의 도움을 받으며 승강구안으로 들어갔다.

어제 만났던 그 녀인이 분명했다. 그도 수연을 찾던 모양이었다. 수연은 급히 그쪽을 향해 걸음을 다그쳐갔다.

혹시 오늘의 리행이 아주 괴로운 일로 될수 있다는 예감에 싸인채 수연은 승강구안으로 들어섰다.

차칸에서는 군데군데 페를 지어 모인 각이한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이 떠들썩 이야기판을 벌여놓고있었다.

《다음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철도, 도로건설문제입니다.》

흰 사츠에 파란 넥타이를 졸라맨 멋쟁이가 판문점선언내용이 찍힌 신문들 들고 열심히 설명하고있었다. 오래전 로동현장에서 의식화활동을 하면서부터 언론을 통해 그 얼굴이 꽤 알려진 사나이는 능란한 말솜씨로 청중을 끌어당기며 화제를 이끌었다.

주위에 키가 늘씬하고 코밑이며 턱과 지어 목에까지 수염터가 거대한 장년사나이가 이마가 볼록 튀어나오고 뚱뚱한 코가 약간 쳐들릴사한 중년부인, 얼굴이 해맑은 서너명의 대학생처녀들, 지어 아빠의 손목잡고

아장아장 걸은 코흘리개아이가 둘러서있었다.

《철도를 국토의 힘줄이라 했던가요? 그런데 우리 철도는 1945년 9월부터 북행길이 뚫려 길진채로 있었으니 이 나라는 70년나 힘줄 잘린 반신불수로 산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성장을 암말해봐야 절름발이 활개칠일뿐이죠. 참, 분통한노릇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술계의 중견인물쯤 되어보이는 사람들이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고있었다.



《모네가 마차나 소말구지 따위를 놀래우며 질주하는 거대한 《피물》에서 반은 인상을 자기의 독특한 색채로 표현하고있을 때 줄라는 무정한 쇠바퀴우에 올라온 문명의 예속할수 없는 미래를 불안스럽게 바라보며 《아수인간》을 써나갔습니다. 기차란것이 생긴 후

인간의 생활에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살길 찾아 저 남쪽 끝에서 떠난 가난한 농부가 하루밤 지내고나면 벌써 먼 북쪽에 당겨 되고 어느 시골처녀가 차칸에서 우연히 만난 어느 미남자와 눈을 맞추는 일이 라든가, 그레가지고는 자유 결혼을 한다고 탈가하는 일이라든가, 하하든 예전엔 상상할수 없었던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났지요.

렐차는 시간과 공간을 압축하며 질주해왔습니다. 하지만 1945년의 이 나라 철도

을 불같이 성토하던 자들의 대학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었다.

통일이 금행렬차처럼 들이닥칠거라느니, 철도로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하게 될거라느니 하는 낭만적인 이야기들도 화제에 오르기도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후 이 사회는 또 한번 흑백의 바둑판처럼 바뀌어졌다.

구치소의 수인들마저 렐차적인 장면을 박수치며 시청할 때 매국배적의 악정을 저지른 죄파로 민중의 버림을 받은 이전 집권자와 세칭 《MB》도 불리우자는 입을 열어 피나게 깨물며 감방벽만 뚫어지지 쳐다보더라고 한다.

우익정객들과 《엄마부대》며 보수단체회원 몇이 거 거리에 뛰쳐나와 《중천선언반대!》, 《미국을 배신말라!》고 피대를 들구기도 하였다.

여의도에서는 대세에 어두운 한 보수정객이 판문점선언을 비방하다가 한때 그를 추종하던 젊은이에게 뺨을 얻어맞고 쓰러지는 희비극이 벌어졌다고도 한다.

통일을 갈망해온 민중은 성취의 희망에 들떠있었고 의세에 의지하며 반공의 그늘속에 생존해온자들은 분노와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있었다.

수연이 늙은이를 찾아 사위를 둘러보는데 출발을 예고하는 기적소리가 울리고 목격한 강철바퀴가 서서히 레우를 미끄러져나가기 시작하였다.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3)

5. 높은 사격술을 지닌 박명원

여러차례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지닌 박명원선수는 관록있는 사격선수이다.



심리적준비와 함께 조준과 격발이 좋은 그는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남자 10m이동목표 혼합사격경기에서 높은 정신력과 정확한 조준, 빠른 격발 등 뛰어난 사격술로 384점을 획득하여 우승의 시상대에 올랐다.

이 종목은 직경이 30mm 밖에 안되는 이동목표를 단 몇초라는 짧은 순간에 명중시켜야 하는 어려운 종목이다.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준비되었다는 선수들도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응

6. 언니와 함께 력기강자가 된 림은심

기관차체육단의 림은심선수는 여러 국제국내경기들에서 높은 기록을 세운것으로 하여 녀자력기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추격올리기에 특기가 있는 그는 지난해에 진행된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력기 69kg급경기에 출전하여 완강한 투지와 인내력, 세련된 기술로 2등을 한 선수보다 13kg이나 더 많은 무게를 들어올리려 영예의 1위를 정취함으로써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지니었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달리기

나라 제52차 국제사격스포츠 트럼펫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남자 10m이동목표사격 단체경기, 남자 10m이동목표혼합사격 단체경기, 50m이동목표혼합사격 단체경기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이며 공훈체육인인 박명원선수는 오늘도 영웅조선의 사격운동을 온 세상에 보여준 백발백중의 명사 리호준처럼 세계의 하늘가에 람홍색 공화국기를 더 높이 휘날리기 위해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 언니와 함께 력기강자가 된 림은심

를 좋아하던 그는 9살때부터 청춘거리 력기경기관청소년체육학교(당시)에서 력기초기술을 배웠다.

를 좋아하던 그는 9살때부터 청춘거리 력기경기관청소년체육학교(당시)에서 력기초기술을 배웠다.

림은심선수는 세계력기계에 널리 알려진 언니 림정심선수처럼 세계적인 력기강자가 될 야심을 안고 훈련에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다 바치었으며 그의 열정적인 훈련기풍은 그대로 뚜렷한 기술발전과 국내경기성공과 이어졌다.

2014년 공화국선수권대회 녀자력기 58kg급경기 끝을 올리면서 1위를 끌어오던 국내선수권을 보유한 림은심선수는 그후 2014년 아시아청소년 및 청년력기선수권대회 녀자력기경기에서 1위를 하였으며 2016년 세계청년력기선수권대회 녀자력기경기에서도 금메달을 쟁취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2017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 녀자력기경기과 제29차 여름철세계대학체육경기대회 녀자력기경기를 비롯한 많은 국제경기들에서 력기강자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오늘도 림은심선수는 평범한 체육인으로 불려온 자기를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로, 공훈체육인으로 내세워준 고마운 사랑에 더 많은 금메달로 보답할 줄은 결의를 안고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본사기자 현은경

세계적으로 력사가 가장 오랜 조선장기

장기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 겨레가 즐겨 두던 민속놀이이다.

조선장기쪽들에 반영되어있는 궁, 차, 포, 말, 상, 사, 좋은 옛날 봉건국가에서 군사의 기본요인으로 되는 수단들을 의미하고있다.

또한 《장기는 무관》, 《바둑은 문관》이라는 말이 전해지고있는데 이것은 장기의 성격이 철저히 군사적 측면을 반영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고려시대에 와서는 놀이이름을 《장수장》자에 《장기》자를 따서 《장기》라고 불렀다.

우리 나라에서 장기에 대한 력사적기록은 세나라시기인 5세기 중엽으로 되어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랜 력사기록적인 《삼국사기》에는 《당시에 백제의 개로왕이 장기에 바둑을 좋아했다.》고 서술되어있다. 이 기록은 우리 나라에서 장기의 기본요인으로 되는 수단들을 의미하고있다.

유럽장기와 일본장기의 발생을 12세기말~13세기초경으로 볼 때 조선장기의 유구한 력사를 잘 알수 있다.

조선장기는 오늘 그 내용과 체제, 두는 방식과 수법 등이 과학적인원리를 기초하여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보충 완성되었다.

본사기자

이발보호방법 몇가지

— 우선 이발을 3분이상 담아야 한다.

그래야 이발의 때가 말끔히 쏠수 있다. 만일 1~2분 동안 담으면 이발의 때가 10%밖에 지지 않는다.

— 또한 아침과 저녁에 치술질을 해야 한다.

치술질은 이발질병을 예방하고 치과위생을 지킬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대체로 아침에만 치술질을 하고 저녁에는 하지 않는것보다 오히려 저녁에만 치술질을 하고 아침에 하지 않는것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저녁에 사람들이 잠을 잘 때에는 타액분비량이 적으므로 이발사이에게 끼여있던 음식찌꺼가 쉽게 발효변질되면서 이발을 손상시키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치술질은 아침과 저녁에 하는것이 가장 좋으며 만일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녁만이 라도 꼭 치술질을 해야 한다.

— 그리고 소금물로 한주

일에 한번이상 입안양치질을 해야 한다. 물 한고배에 소금 한차순가락을 탄 소금물로 한주일에 한번씩 양치질을 하면 이몸이 든든해진다.

— 다음으로 아침저녁으로 이발맞춤기를 하는것이 좋다.

이발맞춤기는 이발을 든든하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발을 마추르면 이발의 충격으로 하여 이발 주변조직의 피순환이 활발해지고 이발과 주변조직의 활동이 강화되므로 이발이 든든해지고 결빙이 미연에 방지된다. 이발맞춤기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서 소리가 들릴 정도로 힘을 주어 아래우의 이발이 맞닿도록 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되 한번에 자기 나이만큼씩 맞추기를 하는것이 좋다. 오랜기간 계속하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

본사기자

유모아 주견없는 사람

주견이 없어 남의 말에 늘 맞장구를 치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날 저녁 그는 열집 뜨락에서 그 집식구들과 한담을 하고있었다. 이때 열집 아들이 갑자기 《뱀이다, 뱀!》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곧 《정말 뱀이군. 내가 방금 《스룩스룩》 하는 뱀기어가는 소리를 들었어.》 하고 말하였다.

열집 아들이 잠시후 《오, 죽은 뱀이로구나.》 하고 말

하였다.

그러자 주견이 없는 이 작자도 《응, 그래서 짐승들은 냄새가 났구나.》 하고 응수하였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열집주인이 등불을 켜들고 가서 살펴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바솔오래기야.》 하고 허구된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다.

《글쎄, 이 추운 날에 무슨 뱀이 있을라구.》 주견없는 사람이 또 맞장구를 쳤다.